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6권 제5호(2010) 441-456

조선시대의 '동해'에 대한 지리인식과 문학적 형상*

이승수** · 오일환***

Geographical Cognition and the Literary Geography Figuration of the 'Dong Hae' in Joseon Dynasty*

Lee, Seung Su** · Oh, Il Whan***

요약 : 동해(東海)는 애초 방위에 따라 붙인 명칭이었지만, 오랜 세월의 역사적 연고를 온축한 고유명사이기도 하다. 동해는 자연의 지리공간인 동시에, 숱한 역사적 사연과 문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역사문화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 글은 동해의 역사 문화적 사연 중, 동해에 대한 선인들의 지리 인식을 검토하고, 나아가 문학작품에 그려진 여러 형상을 살펴본 것이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큰 차원에서 세계의 지리를 파악했고, 그 구도 속에서 국토의 지리와 지세를 인식했다. 이에 따르면 백두산은 천하의 祖宗이 되는 두 산 중 하나로 요동벌판과 한반도와 일본의 지리를 통어한다. 고래로 역사지리가들은 백두산과 백두대간을 거론하며 동해를 짝 지워 언급하였다. 백두대간과 동해는 짝이 되면서 크기와 너비, 높이와 깊이, 그리고 위엄과 도량을 함께 갖춘 온전한 국토지리의 표상이 된다.

동해의 다채로운 문학적 형상을 네 범주로 나누어 다루었다. 우리 문학에서 동해는 첫째,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의기를 거칠고 드세게 확충시켜 주었다. 둘째, 세상과 삶의 이치를 사유하고 통찰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셋째, 백두대간에서의 동해 조망은 국토 인식을 새롭게 해주었다. 넷째, 어촌민들의 고단한 삶이 펼쳐지고, 각종 풍속이나 교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삶의 현장이었다.

주요어 : 동해, 백두대간, 국토인식경관, 국토의 지세, 역사문화의 공간

Abstract : While the Dong Hae was originally named for the point of the compass, it became a proper noun containing knowledge on the long history. The Dong Hae has played host to a number of historic events and cultural meanings and is a geographical space in the nature. This study examined the geographical cognition of ancestors about the Dong Hae among the historic and cultural meanings of Dong Hae and a variety of figurations described in literature. Intellectuals of the Joseon period identified the global geography on a higher level and recognized the geography and topography of the land in the structure that they identified. In this aspect, Mt. Baekdu, one of two mountains which dominated the world, ruled the geography of Liaodong field,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 Historical geographers mentioned the Dong Hae whenever discussing Mt. Baekdu and Baekdudaegan (Great Range) from long ago. Baekdudaegan and the Dong Hae are the complete symbol of national territory with great size, depth, height, width, dignity and magnanimity.

The cultural figurations of the Dong Hae we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In Korean literature, the Dong Hae strengthened the spirits of those who lived in the Korean peninsula. Second, the Dong Hae was the basis to see through and deliberate the reasons of life and the world. Third, the view of the Dong Hae from Baekdudaegan changed the cognition about the land. Finally, the Dong Hae was where the hard life of people in the fishing villages occurred and a variety of customs and trades were dynamically deployed.

Key Words : Dong Hae, Baekdudaegan, cognition on landscape, topography of land, historic and cultural space

1. 서 론

우리는 오랜 세월 국토의 동쪽에 있는 바다를 '東海'로 불러왔다. 이는 애초 방위에 따라 붙인 명칭이었지만, 오랜 세월의 역사적 연고를 온축한 고유명사이기도 하다. 지금도 국토의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동해는 자연의 지리공간인 동시에, 숱한 역사적 사연과 문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역사문화의 공간이기도 하다.

동해는 먼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 본 연구는 2009년도 경희대학교 교비특별연구지원에 의한 결과임(KHU-20090679).

**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문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Hanyang University)(woohabin@hanmail.net)

*** 경희대학교 학부대학 교양학부 조교수(Asistant Professor, College of Liberal Arts, Kyunghee University)(ohil@khu.ac.kr)

살아온 사람들에게 있어 삶의 현장이었고, 꿈의 세계였으며, 역사의 무대였다. 초자연의 신들이 거기 거주하며 인간 세계에 빈번하게 출몰하였다. 동해를 통해 이웃의 문명과 소통하였고 때로는 충돌하였다. 그 어딘가에 환상의 세계가 있다고 믿어 동경하였다. 거기에 고깃배를 띄워 생계를 유지하였고, 풍랑을 만나 삶이 파탄 났다. 풍어와 안녕을 비는 의례를 거행하였으며,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다. 그 너머 세계를 상상하며 삶 속에서 위축되는 기상을 키웠다.

이러한 사연들은 문헌 기록 곳곳에 숨어있기도 하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통해 전승되어 오기도 했다. 어떤 것들은 일상의 생활양식과 언어생활, 각종 의례 속에 감추어져 누군가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동해의 인문지리학적 크기와 깊이는 이에 대한 관심과 통찰, 그리고 해석과 창조적 변용을 통해 더 커지고 깊어질 수 있는 것이다.[1)]

국내에서 동해에 대한 연구는 현장조사에 기초한 민속학적 연구를 비롯하여 고문헌으로서의 고지도(이찬, 1992; 이상태, 1995; 양보경, 2004; 김기혁, 2006) 및 서양고지도(서정철, 1991; 노정식, 1993; 오일환, 2004)에 나타난 지명이나 명칭 그리고 지리인식의 변화(오상학, 2006; 이진명, 1998) 등이 있다. 그러나 동해에 대하여 조선시대 고문헌의 시와 문집에 투영된 역사지리 인식에 대한 문학지리학적 접근은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에서 근대 이전 동해 관련 기록을 검토하여 전통 지리 인식의 구도 속 동해의 좌표를 확인하고, 그것이 지식인들의 문학작품 속에서 형상화되는 다채로운 양상을 분석하여, 동해가 어떠한 의미를 지녀왔는가를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동해에 대한 역사문화적인 인식과 문학지리학적인 연구를 심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단지 검토 자료의 시기 범위는 고려 중엽에서 19세기 전반까지로 제한하였다. 이는 19세기 중반 이후의 동해에 대한 인식은 제국주의 세력의 팽창에 따른 커다란 변화를 반영하고 있기에 본고에서는 제외하였다.

2. 국토의 지세와 지형, 백두대간과 동해

이 땅의 선조들은 국토의 일부로서 동해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시야를 확대하여 국토 조망의 관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국토의 조망은 국소적인 지리 인식의 차원을 넘어, 인식이 미치는 바 세계에서 국토의 위치와 주변 공간관의 관련성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지도 제작의 관점, 정신과 상통한다. 이는 당연히 개인의 지각 한계를 넘는 보편적인 관점을 전제로 하며, 여기에는 그 시기까지의 지리 지식 및 문화적인 관념들이 집적되어 있다.

고려 시대 이후 백두산을 국토의 宗山으로, 백두대간을 주맥으로 인식하는 국토관이 널리 퍼졌다. 전통적인 지식인들은 종종 국토의 지세를 생명체로 은유하여 설명했고, 생동하는 용의 움직임으로 산맥을 인식하는 풍수론도 널리 유행하였다. 그 중 주목할 것은 국토의 형상을 인체에 비유하는 인식이다.(양보경, 1997) 李瀷(1680~1746)는 사람들의 말을 빌려, 백두산 동남쪽 아래 모든 산들은 모두 그 자손이 된다고 했다.[2)] 李瀷(1681~1763)은 鄭尙驥(1678~1752)의 「東國地圖」에 대한 글에서 "백두산은 머리가 되고, 大嶺은 등마루가 되어 마치 사람이 머리를 기울이고 등을 굽히고 선 것 같다. 그리고 對馬島와 제주도[耽羅]는 양쪽 발 모양으로 되어 있다."(『국역 성호사설』, 권1, 「天地門, 東國地圖」)며 이것이 堪輿家의 정론이라고 했다. 이러한 견해는 지도에 가시적으로 구현되었다. 18세기 중엽 제작된 「大東總圖」의 우측 하단에도 우리 국토를 인체에 비유한 설명이 있는데, 여기 따르면 백두대간은 인체의 등뼈가 되고, 제주도와 대마도는 양 발이 된다고 했다.[3)] 이러한 이유로 조선시대 제작된 '조선전도'에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하는 산맥들이 유난히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있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선인들의 지세관은 그 범위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들은 한반도 지세의 근원을 멀리 崑崙山에서 찾았다. 곤륜산은 해발 최고 6,860m에 달하는 파미르고원을 가리킨다.

18세기 중엽 李重煥(1690~1755)이 『택리지』 「八道總論」에서 조선의 지세를 총괄하였다.

> 곤륜산의 한 가지가 큰 사막의 남쪽을 지나 동쪽에서 醫務閭山이 된다. 여기서부터 끊어져 요동 벌판이 된다. 벌판을 건너면 다시

일어나 백두산이 되는데 『산해경』에서 말한 바 不咸山이 이것이다. 백두산의 정기가 북쪽으로 천 리를 달려 두 강을 끼고, 남쪽으로 향해서는 寧古塔이 된다. 그 뒤로 한 가지가 싹이 트니 조선 산맥의 머리이다.[4]

그에 따르면 백두산의 지맥은 북서쪽으로 가까이는 의무려산, 멀리는 곤륜산에 닿아있다. 조선후기에는 이러한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다. 李圭景(1788~?)은 "천하의 3대 幹龍이 모두 곤륜산에서 시원하는데, 그중에서 북쪽 지맥이 河海를 벗어나 흘러 冀州와 燕州의 분계가 된다. 그 나머지 기운이 백두산이 되는데, 백두산이 흩어져 조선의 여러 산이 된다."[5]고 하였다. 또 金正中(생몰년 미상)도 같은 견해를 피력하면서, "백두산은 곤륜산과 더불어 동서의 조종이 되는데, 이 산은 북녘 한가운데 뻣뻣하게 서 있어서 朝會하지 않는 듯하니, 周·漢 이래로 그 밑의 부족이 크게 번성하여 중국에 맞서기도 하였던 것은 진실로 이 산의 기운 때문"(『국역 기유록』, 신해년(1791) 12월 6일)이라며, 지세와 역사를 결부시키는 관점을 보여주었다.

이 관점에서 백두산의 지맥은 남쪽으로 한반도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중환은 백두산에서 시작하는 조선의 산맥이 月出山에 이르러 해남의 綰頭里로 꺾어졌다가 남해의 여러 섬이 되고 또 바다를 건너 제주도의 한라산이 된다고 보았다. 또 한라산의 지맥이 바다를 건너 琉球國이 된다고 보는 세간의 견해를 소개하며, 확실치는 않지만 이치상 매우 근사하다고 하였다.[6] 이중환의 조심스러운 태도 이면에는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놓여있다. 이규경 또한 "북쪽 지맥은 遼海(요동과 발해) 지역에서 다하는데, 다시 백두산이 일어나 조종이 되어 조선과 일본과 유구가 된다."[7]고 하였다. 이규경의 관점에 따르면 곤륜산의 지세는 의무려산에서 끝나는 셈이고, 그 나머지 요동 지역과 조선 그리고 일본의 지세는 모두 백두산을 祖宗으로 삼는 셈이 된다.

다음은 1801년 함경도 종성에 유배된 朴齊家(1750~1805)가 지은 「愁州客詞」 79수 중의 첫 작품이다.

유월에야 불함산 정상에서는	六月不咸頂
큰 못의 얼음이 비로소 녹네	大澤氷始解
동쪽 지맥 일본에 이어져 있고	東脈隱日本
서편 벌판 발해를 감싸고 있네	西砂包渤海[8]

종성에서는 꽤 멀리 떨어진 백두산을 화두로 삼은 것이 자못 상징적이다. 여기서도 박제가는 백두산을 북관 또는 조선의 상징으로만 국한하지 않았다. 3구는 백두산의 지맥이 동쪽으로 일본에 이어져 있고, 4구는 서쪽으로는 요동 벌판과 발해를 품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이 지역들이 모두 첫 구에서 말한 불함산(백두산의 이칭)의 영향 아래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이상의 몇몇 사례로 보아, 조선후기의 지식인들은 백두산과 곤륜산의 지맥은 이어져 있되, 각각 동쪽과 서쪽을 대표하는 조종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백두산의 지맥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북서쪽으로 요동 일대와 발해를, 동남쪽으로는 일본 열도에까지 이어져 있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요동 벌판과 일본 사이 한반도의 지세에 대해서는 李瀷(1681~1763), 申景濬(1712~1781), 丁若鏞(1762~1836) 등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제가의 설명이 대동소이하다. 한반도의 지세는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지리산에서 끝나는데, 그 사이에 설한령·철령·금강산·설악산·오대산·태백산·지리산 등이 있고, 3천 리에 이르는 동안 조금도 끊어지는 곳이 없다. 백두산을 조종으로 하는 이 지맥은 白頭나 長白을 접두어로 하여 大幹·大幹龍·正幹·南脈·大脈 등의 이름으로 일컬어져 왔다. 신경준의 저작으로 보이는 『山經表』는 한반도의 지세를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간추렸다. 현재 이 지맥은 백두대간 또는 태백산맥으로 통칭되는데, 국토의 대동맥으로서 뿐만 아니라 민족의 정기와 역사의 동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중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 백두대간은 국토의 동쪽에 치우쳐 있어 거의 모든 구간에 있어 동해와 인접해있다. 정약용은 濊貊의 옛 강역을 설명하면서, "대간룡의 동쪽에 있는 지역은 모두 서쪽으로 큰 산을 등지고 있고 동쪽으로는 滄海에 임해 있다."[9]고 하였다. 지세의 형성에 있어 백두대간과 동해 사이 불가분의 관계에 대해서는 훨씬 이른 시기부터 언급되어 왔다. 고려말 李穡(1328~1396)은 개성의 聖

居山을 설명하며, "산의 내력이 머니 장백산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꿈틀꿈틀 천여 리를 뻗어와 동해를 옆에 끼고 또 천 리를 내려온다."[10]고 했고, 서거정도 충청도 공주의 산세를 설명하는 가운데, "장백산의 한 지맥이 바다를 끼고 남쪽으로 내려온다."[11]고 했다. 이익도 백두정간을 설명하면서, "왼쪽으로는 동해를 옆으로 끼고 있어 큰 호수와 같이 되어 백두산의 큰 산맥과 더불어 그 출발점과 종착점을 같이하였다."(『국역 성호사설』, 권1, 「천지문 백두정간」)고 하여, 둘을 하나의 짝으로 묶어 놓았다. 삼척에 묻혔다는 穆祖妃의 무덤에 대한 17세기 중반의 기록에도, "백두산의 정맥이 태백산에 결집하여 동해를 案으로 삼았다."(『인조실록』, 18년 경진년(1640) 7월 15일 갑오조)는 말이 나온다.

옛 사람들은 백두산을 기준으로 곤륜산과 일본까지를 포괄하여 천하의 지세를 파악했고, 백두대간이 한반도의 대동맥을 이룬다고 보았으며, 지세의 형성과 구조에 있어 동해는 이 백두산 또는 백두대간과 짝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실제 거리가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변화가 있긴 하지만, 백두대간의 대부분 지점에서 동해의 조망이 가능하고, 백두대간에서 동해 또는 일출을 바라보는 것은 오랜 세월 한국인들에게 천하의 大觀이나 奇觀으로 인식되어 왔다. 아래 몇몇 시들은 백두대간과 동해를 짝으로 인식하고, 또 백두대간 위에서 동해를 조망하는 장쾌한 즐거움을 보여준다.

아래의 시는 모두 조선후기에 지어진 것으로, 세 편은 백두산과 동해를, 나머지 한 편은 마천령과 동해를 짝 지워 읊은 것이다.

① 김창흡, 『三淵集拾遺』 권10, 「鏡城」
하늘과 땅 두 대물이 우연히 만났거니 乾坤兩大偶相遭
장백산 웅장하게 푸른 바다 임했도다 長白雄臨碧海濤
층층 성루 우뚝하게 하늘 높이 솟았는데 獨立層城樓百尺
독수리 붕새처럼 먹구름 속 높이 나네 黑雲鵰沒怒鵬高

② 정두경, 『東溟集』 권1, 「登摩天嶺」
말 몰아 마천령을 올라가는데 驅馬磨天嶺
층층 산봉 구름 속에 들어있도다 層峯上入雲
앞에는 큰 연못이 펼쳐졌는데 前臨有大澤
사람들 이를 두고 북해라 하네 蓋乃北海云

③ 신익상, 『醒齋遺稿』 冊5, 「北關錄, 望長白山」
동쪽으로 천 층 물결 푸른 바다 임하였고 東臨滄海千層浪
북쪽으로 되땅 하늘 만고 구름 바라보네 北望胡天萬古雲
장백산 머리 위에 빗겨있는 굳센 기운 長白山頭橫勁氣
가져다가 소매 속의 글월을 만들고져 携來堪作袖中文

④ 남용익, 『壺谷集』 권6, 「別鏡城李通判晩吉」
백두산 지리 형세 하늘에서 내려오니 白頭山勢自天來
너른 바다 층층 물결 만 리에 열려있네 瀚澥層波萬里開
제왕 난 곳 지형은 굳세고 씩씩하다 豐沛地形雄且壯
원수대 높은 곳을 애오라지 올라보네 試登元帥最高臺

각각의 시에서 碧海, 大澤, 北海, 滄海, 瀚澥는 모두 동해를 가리킨다. 이러한 동해 지명은 고지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이찬, 1992; 양보경, 2004) 이처럼 백두산(백두대간)과 동해를 하나의 짝으로 인식한 기록은 수없이 많다. 백두산과 동해의 지리적 연관성과 인접성은 오랜 세월을 거쳐 하나의 역사문화적 상징으로 구축되었다. 이러한 전통의 연원은 아주 멀다. 『후한서』「동이전」은 東沃沮의 위치를 설명하며, "고구려 蓋馬大山의 동쪽에 있으며 동쪽으로는 大海와 닿아있다."[12]고 하였고, 허목은 고대 동방 종족인 肅愼氏에 대해 설명하면서, "불함산 북쪽에 있으며 동쪽으로는 대해와 닿아있다."[13]고 했다. 여기서 대해가 동해를 가리키고, 동옥저와 숙신씨가 고대 조선의 일부이거나 별칭임은 물론이다.

근대 이전 선인들의 국토관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백두산 또는 백두대간이며, 이는 서북쪽으로는 곤륜산맥을 동남쪽으로는 제주도와 일본 열도를

포괄한다. 지세의 형성과 지형의 구도에 있어 동해는 백두대간의 짝으로 인식되어 왔다. 국소적 관점을 넘어 전역적 관점을 획득할 때, 백두대간과 동해는 짝이 되면서 비로소 陰陽이 갖추어진 하나의 완결된 세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정치적인 영토나 국제외교 차원의 국경 개념과는 별개의 것으로, 앞으로 개방적이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우리의 동해, 국토, 나아가 세계를 인식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된다.

3. 문학 작품에 나타난 동해의 여러 형상

1712년 신익황(1672~1722)은 우리나라 곳곳의 명승에 대한 시문을 모아 엮은 『東國勝景臥遊錄』에서 국토 여행은 관동에서 정점을 이룬다 했고(『克齋集』, 권10, 「東國勝景臥遊錄跋」), 심재의 야담집 『松泉筆譚』은 관동의 황홀한 경지를 겪어보면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고 10년 세월이 지나도 눈썹 사이에 신선의 기운이 남아있다고 했다.(권元) 영랑호의 경우, 신라 때 금강산에서 수련하던 네 화랑이 돌아가길 잊었다는 이야기는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글로 전승되어 왔다. 민간에는 중국 漢 나라의 한 장수가 이 호수에 흠뻑 빠졌다가, 막상 돌아가게 되자 사흘을 목 놓아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져왔다.[14] 동해에서도 특히 관동의 아름다움에 대한 일컬음이 많았지만, 이는 그 중에서도 특히 아름답다는 뜻이지 여타의 지역도 그만 못지않은 빼어남을 갖추었다.

허목은 한 친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동해 명승지의 절경은 10년이 지나도록 상상할 때마다 마음속이 시원해진다. 사람들에게 여행의 즐거움을 말할 제 이를 힘써 말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記言』, 권21 중편, 「答從兄書(又一書)」) 이처럼 동해는 그 특유의 변화무쌍하고 장대기묘한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유혹했고, 예로부터 사람들은 끊임없이 동해를 찾아 나섰다. 이들은 장대한 광경을 가슴에 담으며 기상을 키웠고, 거친 풍파를 맞으며 비분을 다스렸고, 고요함 가운데 사유와 성찰을 통해 인식을 전환하였으며, 어촌민들의 삶과 애환을 살폈다. 그 결과는 수많은 시문으로 남아있어, 우리의 관심과 조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시문들은 공식적인 역사서나 지지가 포괄하지 못한, 미세한 삶의 모습과 다채로운 풍광을 담고 있어 동해의 역사 여행에 있어 훌륭한 안내자가 되어준다.

1) 거칠고 드센 풍광, 기상의 확충

1617년 겨울 인목대비 폐위론에 반대하는 상소를 했다가 광해군의 노여움을 사 유배길에 오른 李恒福(1556~1618)은 이듬해 1월 22일 철령에 올랐다. 휘날리던 눈보라도 그치고 바다 위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어, 푸른 물이 만 리 끝없이 펼쳐졌다. 이항복은 이 광경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늙은이가 이 길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세계를 볼 수 있었으리요!"(정충신, 『白沙北遷錄』)라고 탄식했다. 한겨울 눈보라가 그친 뒤 철령 위에서 바라본 동해의 풍경은, 늙고 병든 유배객의 참담한 심정을 일거에 호탕한 의기로 바꾸었다.

林悌(1549~1587)는 함경도의 남북을 가르는 해발 705m의 마천령 위 원수대에 말을 세우고, 동해 위로 솟구치는 해와 물살을 가르는 고래의 모습을 보며 꿈틀거리는 기운을 주체하지 못한 체험을 그린 바 있다.(『白湖集』 권 1, 「元帥臺 在摩天嶺」) 동해를 마주하면 자기도 모르게 의기가 커져 풍류도 호방해진다. 1580년 강원도 관찰사에 제수된 鄭澈(1536~1593)은 부임에 앞서 관동의 여러 승경을 유람하고 「관동별곡」을 남겼다. 삼척 죽서루에 밤이 들자 풍랑도 고요한데, 달 돋기 기다리고 또 새벽별 뜰 때까지 술잔을 기울이던 시인은 소나무 뿌리를 베고 설핏 잠이 들었다. 꿈에 신선이 나타나 자신의 전생 내력을 알려주고 떠나려 하자 만류하며, 국자 모양 북두칠성을 기울여 창해수를 부어 마시고, 또 이 술을 세상에 고루 나누어 億萬蒼生을 다 醉하게 만든 뒤에 다시 만나 한 잔 할 것을 제안한다. 그 규모도 비할 데 없이 크거니와, 목민관으로서의 포부 또한 그에 못지않다. 그 뒤 任叔英(1576~1623) 또한 금강산 비로봉 위에 올라 "동해를 기울여서 봄 술잔에 더한 뒤에, 이 세상 억만 사람 모두 취케 하고져!"[15]라고 읊조렸으니, 이 또한 백두대간 위에서 동해를 바라보는 지식인의 포부였던 것이다.

1712년 자제군관 자격으로 연행사와 함께 북경에 다녀온 金昌業(1658~1721)은 사방으로 지평선

이 보이는 요동벌판 속에서 동해를 떠올렸다. 그의 생각에 이 세상에서 기이한 광경이라 할 만한 것은 동해와 요동벌 두 가지였다. 대국이라는 중국 사람들 중에도 동해는 물론이고 요동벌을 본 사람이 많지 않을 터인데, 자신은 그 두 가지를 다 보았다며 가슴속 기상을 든든하게 충전했다.(『老稼齋集』 권5, 「遼野」) 1778년 박지원도 요동벌이 자아낸 감흥을 이기지 못해 「好哭場論」을 지었다. 표면적으로는 조선에서는 볼 수 없는 들판의 너비를 말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속내는 제도와 관습과 편견에 얽매여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타고난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없는 조선 사회의 답답한 현실을 통곡한 것이다.(『국역 열하일기』, 「도강록」) 그는 천하의 3대 好哭의 조건 중 하나는 금강산 비로봉에서 동해를 바라보는 상황을 꼽았다. 동해를 가슴에 품었음은 18세기 조선 지식인이 세계와 맞섬에 있어 든든한 자신감의 원천이었던 것이다.

머릿속이 번뇌로 얼룩지고 흉금이 위축되었을 때, 예로부터 이 땅의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은 바다이고, 바다는 동해이며, 동해는 백두대간 위에서 바라보이는 동해이다. 情景은 交融하고 物我는 相生인지라, 사물의 색채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물들고 사람 마음의 상태는 경관에 따라 달라진다. 또 사람과 자연 사이에는 기상의 크기에 따라 그 짝이 정해지니, 태산교악과 무변창해 그 무변광막한 벌판은 영웅과 호걸을 만나야 그 가치가 발견되는 법이다. 고래로 백두대간 위에서의 동해 조망은,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효능을 지녔으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친 삶을 달래려 백두대간을 찾아 오르는 이유이다.

2) 사유와 성찰, 인식의 전환

맑고도 푸른 물결 나는야 사랑하니
爲愛滄波混太淸
모래밭에 서있음을 이상타 생각 마오
路人休怪立沙汀
청동 거울 위에선 하늘과 땅 나뉘고
靑銅鏡上乾坤斷
하이얀 눈꽃속서 해와 달 돋아온다
白雪花中日月生
날아가던 기러기들 외론 섬에 내려앉고
征雁初依孤島下
저녁노을 이따금 조각 돛배 좇아가네
落霞時趁片帆行
떼 타고 떠나려던 옛사람 뜻 품은 채[16]
緬懷魯叟乘槎意
긴 바람 기대어서 휘파람 불어보네
獨倚長風嘯一聲

李珥(1536~1584)가 열아홉 살에 지은 시 「觀海」이다. 강릉 외가 오죽헌에서 태어난 이이는 열세 살에 진사시에 장원급제할 정도로 조숙했다. 하지만 16세에 어머니 사임당 신씨를 여의고 3년상을 마친 뒤 세속 삶에 대한 회의에 사로잡혀 금강산으로 들어가 불법을 공부했다. 그러니 이 시의 배경은 강릉 경포대, 또는 강릉과 금강산 사이 어디쯤인 셈이다. 그는 맑고 푸른 동해를 사랑하여 모래밭에 자주 서서 생각에 사로잡히곤 했다. 앞에 끝없이 펼쳐진 청동거울을 기준으로 하늘과 땅이 나뉘고, 하얗게 부서지는 눈꽃(물결) 속에서 아침에는 해가 뜨더니 저녁에는 달이 돋았다. 바다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무한 우주의 시공간 질서를 말함이다. 줄지어 날던 기러기는 해가 저물자 비로소 외론 섬에 내려앉고, 붉은 노을은 조각 돛배를 좇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바다 속에서 펼쳐지는 가을 저녁의 작은 풍경이다. 우주는 무한하고 존재는 순간이다. 무한 우주 속에서 순간 포착된 기러기, 섬, 노을, 그리고 돛배 등 몇 점 풍경은 존재의 순간성을 상징한다. 그것은 어머니의 삶이고, 자신의 한계이고, 살아있는 모든 것의 숙명이다. 이이는 끝내 세상을 등지려 했던 공자를 떠올리며 세상을 떠나갈 마음을 품는다. 이 시는 가을 저녁 동해를 바라보며 삶의 순간성을 깨닫는 이이의 통찰을 보여준다.

인류에게 있어 바다는 성찰과 사유를 불러일으키는 세계이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답답한 일이 있으면 바다를 찾았고, 물과 뭍의 경계에 섰다. 앞에 펼쳐진 미지의 세계를 바라보았고, 자기가 떠나온 세상을 돌아보았다. 새벽별 속에 반짝이는 고깃배의 등불을 보았고, 떠오르는 해를 맞이했다. 바람에 몸을 적시며 슬픔에 잠겼다.

1328년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읍 괴시1리(호지

마을) 외가에서 이색(1328~1386)이 태어났다. 이 마을 북쪽에 있는 괴시2리와 대진항 사이에 상대산이 있다. 동서로 바다와 영해평야가 한 눈에 들어오는 곳이다. 이색은 젊은 시절 이 산 위에 올라 동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기를 좋아하여, 이곳에 觀魚臺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는 여기서의 성찰을 「觀魚臺小賦」에 담아 후세에 남겼다. 이 시에서 이색은 멀리 동해를 조망하다가 서서히 렌즈를 돌려 자기 내면으로 향하게 했다. 동해를 거울삼아 자신의 내면을 비춰보는 것이다. 그의 뜻은 천하의 공명을 얻는 것도 아니요, 자신을 알아줄 주군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다. 그가 바라는 삶이란, 자연의 이치를 즐기며 천지의 이치를 탐구하는 儒者가 되는 것이다.(『牧隱詩藁』 권1) 이 시는 고려 말 젊은 신흥사대부의 자기 성찰을 잘 보여준다.

뒷날 자신의 다짐대로 이색은 고려 말을 대표하는 선비가 되었고, 그가 위 시를 지어 읊조린 동산 일대는 관어대로 일컬어졌다. 그리고 이 마을을 찾은 사람들은 이색이 「관어대부」를 지은 뜻을 회고했다. 100년쯤 지난 1466년 이시애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김종직(1431~1492)은 군사를 모으러 영해에 갔다가 이색의 사연을 추체험하면서 위 시에 화답하였다. 이 시에서 김종직은 이색의 시를 읊조리니 마치 진기한 음식에 배가 부른 듯하고, 세월의 간극을 느끼지 못하겠다며, 이색과 같은 성실하고 지혜로운 군자가 될 것을 다짐하였다.[17] 김종직 뒤로도 많은 이들이 관어대에 올라 옛일을 회고하고 시를 남겼다. 관어대는 지금도 동해를 바라보고 옛사람을 떠올리며 자신을 성찰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임진왜란 때 스승 休靜과 함께 승군을 모집하여 국토 수호에 앞장서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일본에 사신으로 가 강화협정을 맺고 돌아온 惟政(1544~1610)은 「東海辭」를 남겼다. 유정은 출가한 뒤 금강산, 오대산 등 백두대간의 산중에서 여러 해 수행하였으며 금강산에서 임진왜란을 맞이했다. 그는 왜군이 강원도 지역을 유린할 때 적장을 만나 담판을 지어 약탈을 금하게 했고, 승군을 모집했던 곳도 고성의 建鳳寺였다.(김상현, 2000; 양언석, 2006) 그러니 그에게 있어 동해는 삶의 많은 시기에 있어 고개만 들면 보이는 친숙한 세계였다. 그에게 동해는 광대무변의 세계이다. 또 더 이상 맑아지지도 않고, 휘저어도 흐려지지 않으며, 가뭄에도 줄지 않고 홍수에도 늘지 않는 불변의, 즉 不減不增의 세계이다.(『사명당대사집』 권1) 유정에게 동해는 불법의 바다였던 것이다. 이 시는 동해를 마주하는 불교 수행자의 성찰을 잘 보여준다. 유정은 동해를 보며 僧俗不二 空色一如의 불법을 체득하였고, 이는 임진왜란을 맞아 죽음과 작은 파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大自在한 행동으로 구현된다.

유정보다 한 세대 뒤에 태어난 임숙영은 식견이 풍부하고 문장 솜씨가 출중했지만 불의를 참지 못하는 자존심 때문에 평생 벼슬길의 풍파를 비껴가지 못한 인물이다. 그는 젊은 시절 동해가에서 사나운 풍랑이 지난 뒤 멀쩡한 채로 남아있는 배·나무·물고기 등을 보고, 혹독한 외부 조건에도 본성을 잃지 않는 존재의 이치를 통찰했다. 하지만 벼슬바다[宦海]에 한번 풍파가 몰아치면, 그것이 가짜 풍파임에도 불구하고 나루터가 진동하며 도대체 남아나는 것이 없다. 논에 가라지가 무성해지면 벼가 자라지 못하듯, 화려하게 포장된 가짜가 득세하면 진짜는 외려 가짜가 되거나 아예 숨어버리고 만다. 임숙영은 가짜가 득세하자 진짜 인재들이 숨어버린 슬픈 현실을 깨달았다.(임숙영, 『疎菴集』 권7, 「東海風波說」)

1773년 봄 스물두 살 서얼 청년 朴齊家(1751~1805)는 금강산에 놀러갔다가 동해에서 고기잡이를 구경하고 거기서 깨달은 바를 글로 남겼다. 이날 잡힌 물고기는 100여 종이나 되었다. 박제가는 물고기들을 해안에 늘어놓고, 어부들의 말과 圖經을 기록을 뒤적이며 그 이름을 하나하나 맞춰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도 모를 것들이 많았다. 바다의 일부에 사는 물고기도 이러할진대 저 멀고 깊은 바다에는 얼마나 신기한 존재들이 많을 것인가? 세상은 넓고 사람의 식견은 유한한데도, 사람들은 자기와 다르면 비웃고 본 적이 없는 것은 기이하다고 수군거린다. 우물 안 개구리들이기 때문이다.(박제가, 『정유각집』, 하) 이는 인재가 신분·지역·성별·당파를 가려 나지 않는데도, 편협한 기준으로 극히 일부에서만 인재를 취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박제가는 동해의 고기잡이에서 18세기의 부조리한 제도에 묶여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조선사회와 자신의 슬픈 처지를 통찰했던 것이다.

조선시대 북경에 가던 사신들은 만리장성의 동쪽 끝인 山海關을 지나야 했다. 산해관에서 남쪽으로 2km 가량 가면 寧海城이 나온다. 성은 발해로 20여m 들어가서 끝이 나는데, 끝나는 지점에 높은 대를 쌓아 이름을 望海臺라 했다. 사신들이 틈을 내어 둘러보았던 곳이다. 1782년 사행길에 올랐던 洪良浩(1724~1802)도 이곳을 찾았다. 중국 사람들은 여기에서 바라보이는 광경을 天下大觀이라 했는데, 홍량호는 발해는 요좌(遼左, 요하 서쪽이란 뜻)의 한 도랑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홍량호, 『耳溪集』 권13, 「望海臺記」) 그들이 우리의 동해와 같은 큰 바다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홍량호가 보기에 발해나 서해는 동해에 비하면 작은 도랑에 지나지 않았다. 홍량호는 조선인으로서의 자의식이 강했던 지식인이다. 그는 북경 사행 내내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의식했고, 거대한 중국의 영토와 문명에 맞서기 위한 방편으로 동해와의 일체성을 내세웠던 것이다. 홍량호에게 있어 동해는 중국과는 명백하게 다른 독자적 문명국 조선의 표상이었다.

한 개인의 삶의 성패는 성찰의 진지함에 달려있고, 한 사회의 역량은 사유의 양과 수준에 비례한다. 예로부터 이 땅에 살아온 사람들은 동해를 바라보며 자신을 성찰했다. 성찰의 대상은 한 개인의 내면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모순이기도 했으며, 때로는 국가의 방향이 되기도 했다.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이다. 동해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사유 크기와 성찰의 진지함에 따라 개인의 삶이 달라지고 사회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백두대간의 동쪽 바다는 모두 동해이다. 우리 동해의 크기가 일본 열도에 막히는지, 그 너머로 확대되는지는 우리의 사유 크기에 달려있다.

3) 국토의 조망, 겸공臺와 울릉도

파도가 높고 수심이 깊으며 섬이 드문 동해 오랫동안 국가 영토로 존속해온 두 섬이 있으니 바로 울릉도와 독도이다. 울릉도는 경북 울진 죽변항에서 130Km, 강원 삼척 임원항에서 137km 떨어져 있다. 독립된 소왕국이었다가 512년 신라에 병합되었으며, 당시에는 于山國으로 불렸다. 원래의 우리말 이름은 우르마 또는 우르뫼였다. 고려시대에 들어 우릉도, 울릉도, 무릉도 등 비슷한 발음으로 일컬어졌다. 15세기 초 이름이 울릉도로 정해지면서, 독도가 于山島라는 이름을 차지했다. 우산도에는 우산국의 屬島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87.4km로 맑은 날 육안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고지도들은 예외 없이 두 섬을 鬱陵島와 于山島로 표기하여 자국령임을 밝혔다.(오상학, 2006) 산발적으로 일본과의 영유권 문제로 다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19세기 이전 일본 정부도 두 섬이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였다.(신용하, 2003)

1952년 이후 지금까지 일본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해오고 있지만, 그것은 정치적 의도의 소산일 뿐 울릉도는 물론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였음은 두 나라의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역사지리서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입증하는 공식 기록들이 풍부하다. 15세기 전반 제작된 『세종실록지리지』는 "于山과 武陵 두 섬은 울진현의 정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의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는데, 신라 때에는 우산국이라 하였다."고 두 섬이 조선의 영토임을 명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식적인 입장 외에 근대 이전 우리의 문사들은 두 섬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아쉽게도 개인의 기록에서는 직접 두 섬을 탐사했던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고려중기 이후 해양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에서 기인한다. 그렇다고 해서 고려와 조선의 지식인들이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를 몰랐거나 국토의 일부로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다양한 문헌을 통해 두 섬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그것이 자국의 영토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많은 지식인들은 울릉도에서 가까운 울진과 삼척을 지날 때면 울릉도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울진과 삼척의 몇몇 고지에서는 맑은 날 울릉도를 볼 수 있었으니, 많은 이들이 울릉도를 조망하고 그 감회를 남겼으며, 날이 흐려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그 아쉬움을 남겼다.

기록상 울릉도 조망의 사례를 처음 보여준 이는 李承休(1224~1300)이다. 이승휴는 29세에 삼척에 갔는데, 그 이듬해 고려가 몽골의 침입을 받으면

서 10여 년 그곳에 머물렀다. 삼척은 그의 외가였고, 당시 삼척에는 홀로 된 그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다.(변동명, 2005) 그는 삼척의 蓼田山城에서 몽골군의 침입을 대비하였다. 이 성의 동남쪽으로 동해가 넓게 펼쳐졌는데, 문득 구름과 바다 가운데 한 산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였다. 현지 사람들은 그것을 武陵島라고 하였다. 무릉도는 울릉도의 옛 이름 중 하나이다.

이승휴는 강릉부사의 요구를 받고 「望武陵島行」을 지었다.

유리빛 한 가지로 천지를 칠한지라
一色瑠璃抹天地
사방을 둘러봐도 끝이 없구나
四望無涯涘
구름 안개 속 출몰하는 산이 있는데
有山出沒雲煙中
안개 구름 흩어지면 산 더욱 푸르네
煙消雲散山彌翠
마디 크기 푸른 것 둘로 갈려 나타나니
雙分寸碧生
가로 누운 거울 속의 눈썹이어라
婉轉蛾眉橫鏡裏
문득 큰 산이 만 길로 우뚝 서고
忽大嶷然立萬丈
푸른 옥이 뒤따라 하늘 버텨 일어난다
蒼璧隨以撐天起
멀리 아득하게 달아났다가
或遠挺杳茫
비취 봉황 바람 타고 날아와 서고
翠鳳沖天暫向風前止
때로는 내 앞에 다가와서는
又近當我前
투명한 빛 어지러이 창가에 떨어지네
秀色崩騰落窓几
때로 다시 어딘가로 사라지니
時復沒何許
만 리 물결만이 아득히 멀 뿐이라
萬里蒼蒼空遠耳
출몰이 황홀하니 없는 듯도 하고
昏明怳忽似有無
천태만상 날씨 따라 조석으로 달라진다
千態萬狀頗逐陰晴朝暮異
아름다운 용궁이 그 위에 놓여있고
珠宮貝闕冠其巔
천상의 눈과 서리 춤추듯 떨어지네
玄霜絳雪聯翩墜
천상 선계에 살기를 원치 않고
不願上界足官府
난새 봉황 타고 한가로운 신선과 놀고 싶어라
願與散仙鞭笞鸞鳳相遊戲
바람결에 휘파람 길게 불면서
臨風放長嘯
이 세상 속된 기운 씻어내고서
滌盡從前煙火累
금단 환약 한 알을 가지고 와서
還將一粒金丹
나의 어진 벗님에게 사례하리라
歸謝我賢知己

먼 바다에서 날씨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출몰하는 울릉도의 모습을 그려낸 작품이다.(『動安居士行錄』 권1, 「望武陵島行」) 현실 속 울릉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만, 이것이 관찰자의 눈에 포착되는 문학적 이미지는 매우 다채롭고 역동적이다. 울릉도는 손가락 마디만한 모습으로 겨우 나타났다가 하늘을 떠받칠 듯 솟아오르고, 아득히 멀리 사라졌는가 하면 어느새 다가와 창문 앞에 떨어지기도 한다. 그러다가 문득 모습을 감추어 버리고 나면, 과연 그런 섬이 있는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조정에서의 공식적인 조사 보고서가 작성되기 전 울릉도는 다분히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仙界의 이미지를 지닌다. 당시 울릉도는 武陵島로 표기된 사례가 많은데, 여기에는 이 섬을 武陵桃源으로 인식하는 관념이 침투되어 있다. 이승휴 또한 울릉도를 신선 공간으로 상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몽골의 침입으로 피폐해진 조국의 사정과 함께 뜻대로 풀리지 않는 자신의 처지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18] 이로부터 100년 뒤 원천석(1330~?)도 동해안에서 울릉도를 바라본 시 「登知峴望蔚陵」를 남겼다.[19]

왕조가 조선으로 바뀌면서 15세기 이후 울릉도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각종 지리서와 지도에는 울릉도의 영유권 표시가 명기되기 시작한다. 동시에 문사들의 울릉도에 대한 관심 표명도 잦아졌다. 그중 召公臺는 울릉도를 조망하는

곳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다. 黃喜(1363~1452)는 1423년 심한 기근이 발생한 강원도관찰사로 부임하여, 진휼정책을 잘 펼쳐 굶주리는 백성이 없게 하였다. 이에 강원도에서 황희의 명망이 높아졌는데, 특히 삼척부 원덕면 사람들이 그 은덕에 감읍하여 황희가 지나다니며 쉬곤 하던 瓦峴 정상에 돌을 쌓아 대를 만들고 소공대라 하였다. 召公은 周나라 초기의 인물로 그가 다스린 지역에는 상하 모두 자기가 있을 자리를 얻어 직업을 잃은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선정을 펼친 인물이다. 그 뒤 그 자리에 황희의 공적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졌다.[20] 와현은 삼척 臨院港에서 서남쪽 가까운 곳,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에서 비화리로 넘어가는 옛 7번 국도변에 위치해 있다. 현재 비화리로 넘어가는 옛 길은 끊어진 상태이며, 현재 소공대 위에는 비석과 함께 비각이 서있다.

옛 7번 국도는 먼 옛날부터 통용되던 동해안 길이었는데, 소공대가 세워진 뒤 이 곳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쉬어가며 옛 사연을 추억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맑은 날 울릉도를 보게 되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공대는 울릉도를 조망하는 장소로 알려지게 된다. 1590년 柳夢寅(1559~1623)은 소공대(비)의 내력과 모습을 말한 뒤, "바다 물결에 울릉도 떠있는데, 푸른 산 날렵하게 솟아있도다. 대나무 순 배처럼 표류하는 양, 물결 따라 사슴이 건너가는 듯."[21]이라고 읊었다. 울릉도를 대나무 순과 사슴에 비유한 표현이 신선하다. 1594년 李山海(1539~1609)는 "우뚝 솟은 소공대, 울릉도가 뚜렷이 보이는구나."[22]라 했고, 또 "眞珠府(삼척의 다른 이름)와 이 섬(울릉도)이 가장 가까이 마주하는 까닭에 소공대에 오른 행인들은 혹 그 숲이 우거진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으니, 그곳이 그렇게까지 멀지 않음을 알 수 있다."[23]고 하였다. 이밖에도 李春元(1571~1634)과 이서구(1754~1825) 등도 소공대에서 울릉도를 바라본 감회를 시로 남겼다.[24]

한편 동해안에서 내륙으로 들어간 경상북도 봉화의 태백산에서도 울릉도를 조망한 기록이 있어 주목을 끈다. 태백산은 풍광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실록을 보관하는 史庫가 있어 공식적인 업무 차원에서도 지식인들의 발걸음이 잦았던 곳이다. 1700년대 초 申靖夏(1681~1716)는 사고에 보관된 실록을 볕에 쬐는 曝史의 임무를 띠고 태백산에 올랐다가, 이곳 覺華寺의 승려들로부터 맑은 날이면 울릉도가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25] 정작 그는 구름 때문에 울릉도를 보지 못했지만 이곳 승려들에게는 그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735년 李麟祥(1710~1760)도 비슷한 곳에서 멀리 동해 위에 춤추듯이 떠있는 세 봉우리를 확인하였다. 울릉도는 오랫동안 三峰島로 일컬어져왔는데 그것은 聖人峰(해발 984m)을 비롯한 울릉도의 세 봉우리가 각인되었던 까닭이다. 이인상의 눈에 실제 세 봉우리가 변별적으로 인지된 것이 아니라면, '三峰'이라는 관념이 세 봉우리를 인지하게 한 것이다.[26] 신정하와 이인상이 말한 바 울릉도가 보인다는 곳은 강원도 태백의 태백산(해발 1,556.7m)가 아니라, 이 태백산의 줄기인 覺華山(해발 1,177m)이다.

이들 외에도 울릉도를 조망한 시문이 여러 편 남아있는데, 이로 보아 울릉도와 위도가 비슷한 울진 북부와 삼척 남부의 고봉에서는 모두 울릉도가 보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18세기 李敏輔(1720~1799)도 「아침 일찍 큰 고개를 넘어가다가 울릉도를 보다」라는 시에서, 일출 무렵 사람들이 가리키는 손끝을 따라 비취색 울릉도의 세 봉우리를 보았다고 하였다.[27] 그런데 이들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록자들에게 울릉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들은 모두 현지 주민들이거나 산간의 승려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시문은 지식인들의 목소리로 기술되어 있지만, 그 배면에는 소박한 백성들의 지시와 증언이 깔려 있다는 뜻이다. 이는 동해안 일대의 주민들이 울릉도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으며, 사대부 관료들과 함께 울릉도에 대한 관심과 국토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28]

고려와 조선시대에 동해안에서 울릉도를 조망한 여러 사례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오늘날 이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울릉도 조망이 가능한 지점을 널리 알리고, 주변의 역사 유적이나 명승지와 함께 '울릉도 조망'의 관광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소공대의 경우 끊어진 길가 외진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황희 정승과 함께 울릉도를 바라보다」라는 주제와 함께

필요한 약간의 정보를 제공해도, 역사와 자연과 국토 인식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여행상품이 될 수 있다.

4) 어촌의 風情, 어민들의 삶과 애환

어촌민들에게 있어 동해는 고통스러운 생존의 현장이고 생활의 무대였다. 이들의 삶은 민간 신앙이나 전설, 민요 등에 배어 전해지는 외에, 사대부 지식인들이 포착한 시문에도 대상화되어 남아 있다.

① 김창흡, 『三淵集』 권8, 「松轟亭」
아침놀에 온갖 그물 대사립에 말리는데
朝霞萬網曬篁扉
큰 물고긴 드물어요, 손님에게 말을 하네
向客猶言得鯔稀
밤이 오면 하늘 밖에 노 저어 나갔다가
聞說夜來天外泛
울릉도 외론 달을 싣고서 온다 하네
鬱陵孤月載而歸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에 있었던 松轟亭 부근 어부 집의 아침 광경을 포착한 화면이다. 아침 햇살 속에서 어부가 대나무 사립에 그물을 말리고 있다. 대나무 사립[篁扉]에 어부의 가난한 살림살이가 드러난다. 문면에선 생략되었지만 시인은 "고기가 잘 잡힙니까?"라고 물었고, 어부는 "큰 건 잘 안 잡히네요."라고 심드렁하게 대답한다. 이 또한 어부의 생산이 풍족치 않음을 암시한다. 3구에서 눈앞 풍경은 다소 신비스러운 먼 바다의 장면으로 전환된다. 3,4구는 모두 어부의 말을 받아 간추린 것이다. 밤이 오면 울릉도가 있는 먼 바다까지 배를 저어 나갔다가, 달빛만 싣고 돌아온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지식인들의 관념에서 '달빛을 실었다' 함은 세속 욕심을 버린 한가로운 풍류의 표상이었지만, 어부의 삶에서 그건 가난을 의미한다. 어부의 말에는 고단한 삶을 체념하는 허허로움이 묻어있다.

이 시를 지은 김창흡은 당대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벼슬을 멀리하여 평생 여행과 은거를 반복하며 시문과 학문에 잠심하였다. 강원도 동해안 길은 그의 족적이 특히 많이 남아있는 곳이다. 아래 시는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 九仙峰 아래 鑑湖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지은 것이다.

② 김창흡, 『삼연집』 권10, 「鑑湖夜宿」
물결은 모래 쓸고 빗발이 내리노니
暗浪淘沙雨脚垂
그 소리 밤새도록 성근 울에 울리노라
有聲終夜在疎籬
어촌은 앉은 채로 아침 조업 잃었거니
津村坐失朝漁利
하루 배 못 띄우면 열흘을 굶는 것을
一日停船十日飢

앞의 시와 마찬가지로 시간은 아침인데, 비오는 아침이다. 밤새 비가 내렸다. 시인들에게야 밤비 소리는 시상을 자아내는 감미로운 소리지만,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들에게는 出漁 여부를 불투명하게 하는 악천후이고, 때로는 바다에서의 안전한 조업을 방해하고 생명을 빼앗는 위협 요소이다. 어부들의 마음 졸임이나 푸념 등은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대신 밤새 내린 비가 어부들의 삶에 끼친 결과는 마지막 한 구절에 압축되어 있다. 영세 어부들에게 있어 하루 출어는 하루만이 아닌 열흘의 생계가 달린 일이다. 말은 다했어도 그 여운은 다함이 없다. 시어는 28자로 끝났지만, 앞으로 한동안 굶주림에 시달리는 어부 가족의 모습은 다하지 않은 시상으로 남는다. 김창흡은 다른 시에서도 "안개 물결 詩景으론 넉넉하지만, 갈혀버린 포구 집들 시름에 젖네."[29]라고 하여 표면의 아름다운 풍경과는 상치되는 어촌의 시름을 대조적으로 묘사한 바 있다.

③ 김창흡, 『삼연집』 권8, 「漁舟 1」

가뭄 홍수 하늘의 노여움 있어	旱澇天怒在
물에서는 물고기들 흉황이로다	川澤卵生貧
배불리 회를 먹는 서울 관리들	飽膾長安吏
누더기 옷을 입은 바닷가 백성	懸鶉海邑民
임금님은 궁궐 깊은 곳에 계시고	黈旒深御殿
포구에는 채찍질 넓게 퍼지네	鞭撻廣漁津
관동의 참상 담은 한 폭 그림을	一幅關東畵
어찌하면 궁궐에 걸 수 있을까	何由挂北辰

김창흡이 1708년에 강릉에서 지은 작품이다. 때는 가뭄이 심하여 물고기들도 씨가 마를 정도였다. 바닷가 백성들은 누더기 옷을 입고 굶주리는데, 이런 사정과 상관없이 서울의 관리들은 배 불리 회를 먹는다. 극단으로 상반된 두 장면의 대조적 배치만으로 고위 관리들의 무능과 부패, 바닷가 백성들의 가난과 기아의 실상이 각각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간극이 크기는 권력의 비도덕성 및 정치의 부패도와 비례한다. 하지만 나라의 萬機를 통찰해서 차고 모자람이 없게 해야 하는 임금은 궁궐 깊은 곳에서 세상의 물정을 알지 못한다. 시인은 관동 지역 바닷가 백성들의 참상을 그림으로 그려 궁궐에 걸고 싶다고 했다. 이러한 시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동해가 지닌 추상적인 역사와 낭만적 풍경 관념을 극복하고, 동해가 안고 있는 역사의 작은 상처들을 엿보게 한다. 역사의 상처를 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살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들의 시선은 때로 아주 독특한 풍속 장면을 후세에 남겨놓기도 한다. 김창흡은 강릉을 지나며 너덧 사람들이 해변에 모여 미역을 채취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포착한 바 있다.[30] 미역은 한국의 바다에서 나는 특산물로 문헌에는 海帶, 海藿, 昆布, 藿, 甘藿, 海藻, 海羅, 多士麻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어 왔다. 이익과 이유원은 미역이 임산부의 기력 회복에 특효가 있으며, 중국의 의서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선의 독특한 음식문화로 보았다.[31] 정약용은 다시 조세 항목 중 藿稅에 대해 기술하면서 미역의 산지와 채취 방법, 그리고 부세의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32] 개인 기록 중 미역에 대한 기사는 14세기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박제가가 1801년 유배지인 함경도 종성에서 지은 시 「海帶, 今稱藿」(『정유각집(중)』)이다. 관북의 동해안은 미역의 특산지였으며, 그 품질이 좋기로 유명했다.[33]

모두 15韻 30구에 5언으로 이루어진 이 시는, 온 나라에서 미역이 산후조리용 음식으로 이용되는 풍속을 새삼 주목한 것이다. 박제가는 중국의 博物志와 의서를 두루 살피고, 어부들에게서 전승 내력을 취재한 뒤에 미역 요리가 조선 특유의 음식문화임을 알았다. 근대 이전 출산은 여성들에게 가장 큰 액이었는데, 그 주요 원인은 출혈이었다. 박제가의 전언에 따르면, 고래에게 먹힌 어부가 칼로 위 점막에 상처를 내자 고래가 깜짝 놀라 미역을 먹었더니 상처가 아물었고, 고래 배에서 탈출한 어부는 마침 해산 끝에 출혈이 과다하여 다 죽게 된 아내에게 미역을 먹였더니 소생했으며, 이로부터 미역이 산후조리 음식으로 널리 이용되었다고 한다. 이 설화는 당시 어부들 사이에 꽤 널리 알려졌던 이야기인 듯하다. 이에 따르면 어부들은 미역이 출혈 억제와 상처 치유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박제가는 당시 조선 사회에서 산모들이 불수산은 아니 먹어도 미역국만은 꼭 먹었다는 사실과 함께, 사찰 식단의 주요 부분을 차지했다는 사실도 알려준다. 박제가의 시는 관습적으로 행하고 있지만 그 기원과 내력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은 우리 음식문화 전통의 일단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하다.

근대 이전 동해안 번화한 시장 풍경 및 활발한 경제 활동상을 보여주는 문학작품도 있다. 18세기 이후 조선에서는 상업이 비약적으로 발달했는데, 이는 함경도 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도로 및 유통망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함경도의 포구는 어물은 물론 산간 지역의 광물과 蔘·녹용 등이 집산하여 활발한 상거래가 이루어졌으니, 그중에서 덕원의 원산포는 전국 3대 포구 중의 하나로 꼽혔다.(고승희, 1996) 역시 1801년 박제가가 유배 길에 원산을 지나다가 견문과 감회를 그린 시 한 수는 1800년 무렵 교역 도시 원산의 활기찬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박제가는 중국의 대표적 상업 도시에 견주어 원산이 조선 최대의 교역도시임을 말했다. 포구에는 남쪽의 면화와 쌀을 가득 실은 상선들이 돛을 높이 세우고 가득 정박해있다. 이 배들은 원산에서 바꿔 사가는 것은 북관에서 생산되는 삼베이다. 바닷가라고 해서 물길로만 교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뭍길에는 서울에서 물건을 싣고 오는 말들이 만 마리라 했으니 그 상단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사람과 물산이 모이면 자연 여각과 객주를 비롯한 상점들이 들어서기 마련이다. 바닷가 언덕에는 들어선 2천 호의 집들은 그러한 번화상을 말없이 보여준다. 일관되게 상업

과 국제 교역의 중요성을 역설했던 박제가에게, 원산은 자신의 평생 포부를 실천하며 살 만한 도시였다.[34]

박제가 시의 형상들이 비교적 먼 거리에서 원산의 이곳저곳을 조망한 장면들이라면, 아래는 원산 저자의 중심지에 렌즈를 맞춰놓고 근접 촬영한 화면에 견줄 수 있다.

李崙夏(1820~1859)가 1849년 가을 북관을 여행하는 가운데 파장이 가까운 저물녘 원산 저자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다.(『北遊錄』).

> 8로의 장사꾼이 여기 다 모였다. 물화의 축적과 화폐 및 물물거래가 지극히 번화하다. 육지와 바다에서 나는 물건치고 없는 것이 없으니, 은진의 강경포 창원의 마상(산)포와 으뜸을 다툰다. … 저녁 무렵 원산에 도착했는데, 마침 시장에서 교역이 한창인지라 사람과 가축이 뒤섞여 있고 먼지가 자욱하여 눈을 뜨기 어려웠다. 어깨에 멘 자, 머리에 인 자, 소에 실은 자, 말에 태운 자, 술에 취해 길가에 누운 자, 술 마시고 싸우는 자, 떡을 사서 먹으며 가는 자, 밥을 사서 막 먹으려고 하는 자, 술기운을 이기지 못해 토하는 자, 술에 취해 비틀비틀 걷다가 거꾸러지는 자, 어깨에 멨던 물건을 길가에 풀어놓고 나무 그늘에서 쉬는 자, 의관을 갖춘 양반, 남녀노소가 떼 지어 어지러이 오가는데 엽전 꿰미마냥 그 줄이 끊어지지 않으니 길을 얻어 나아가기가 힘들었다. 시장가에 이르자 길이를 재어 베와 비단을 파는 사람도 있고, 양을 헤아려 곡식을 사는 사람도 있다. 생선을 사는 자, 돼지고기 소고기를 사는 자, 소와 말을 거간하는 자, 광주리 사는 자, 키와 삼태기 사는 자, 놋그릇 사는 자, 신발과 자리를 사는 자, 값을 다투어 갔다가 다시 오는 자들이 하도 형형색색이어서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인가의 즐비함이 마치 읍부(邑府)와도 같으니 참으로 큰 도회지이다.

그가 말한 대로 충청도의 강경포구, 경상도의 마산포구와 함께 조선의 3대 포구의 하나였던 원산은 동해의 온갖 해물과 산간의 토산물들은 물론, 남쪽과 북방의 산물들이 교역을 위해 모여드는 곳이었다. 시장에는 온갖 물건들이 거래되는 가운데 사람들이 하도 많아 앞으로 나가기 어려울 정도였다. 작자는 시장 주변 곳곳에서 술에 취해 토하는 자들이나 나무 그늘에서 물건을 내려놓고 쉬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세밀하게 묘사했다. 마치 판소리 사설을 연상시키는 가락의 문체와 역동적이고 생생한 묘사는, 21세기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150년 전 원산시장에 들어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물을 말리며 생계를 걱정하는 포구의 장면, 기상 악화에 밤새 마음을 졸이는 어부의 마음, 상황에 따라 경제 사정이 피폐해지는 어촌의 상황, 미역을 채취하거나 오징어를 말리는 모습,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수산물 시장의 광경, 무역선과 여객선의 출입이 끊이지 않는 항구의 활기, 이는 고금이 다르지 않는 우리 동해의 풍경이다.

4. 결 론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의 국토 동해는 단순한 자연 공간을 넘어, 오랜 세월 우리의 역사와 문화의 사연들이 켜켜이 쌓여있는 공간임을 확인하였다. 지리의 인문학적 의미는 영해와 영토 사이에 차이가 없는 셈이다. 근대 이후 동해는 독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 그리고 바다 명칭 표기 문제에 있어 일본과의 갈등 공간으로 주목 받아왔다.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본고는 동해가 안고 있는 국제외교적 갈등 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 동해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을 환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작성되었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큰 차원에서 세계의 지리를 파악했고, 그 구도 속에서 국토의 지리와 지세를 인식했다. 이에 따르면 천하에는 祖宗이 되는 두 큰 산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백두산이었다. 백두산은 요동벌판과 한반도 나아가 일본의 지리 형세를 지배한다. 백두대간이 백두산을 조종으로 하여 한반도의 척추[大幹]를 이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해의 위상과 역할이다. 고래로 역사지리가들은 백두산과 백두대간을 거론하며 습관적으로 동해를 거기에 짝 지워 언급하였다. 백두대간과 동해는 서로 짝이 되면서 비로소 크기와 너비, 높이와 깊이, 그리고 위엄과 도량을 함께 갖춘 온전한 국토지리의 표상이 된다.

동해가 문학의 대상이 된 것은 유래도 멀고 그

양상 또한 다채로운데, 이 글에서는 그 양상을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다루었다. 동해는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의기를 거칠고 드세게 확충시켜 주었다. 광막한 遼野 한 가운데 선 몇몇 연행사들은 동해를 떠올리며 조선인으로서의 자의식을 확인할 정도였다. 동해는 때로 세상과 삶의 이치를 사유하고 통찰하게 하는 계기로도 작용하였다. 동해에서 이색은 유자의 꿈을, 유정은 불가의 이치를, 박제가는 차별 없는 세상을, 홍량호는 조선의 중심 위치를 다짐하거나 깨달았다. 백두대간 어디에서나 동해 조망이 가능하지만, 경상도 북부와 강원도 남부 일대에서는 울릉도의 조망이 가능했다. 이 지점을 지났던 사람들은 동해 멀리 떠있는 울릉도의 세 봉우리를 보면서 국토 인식을 새롭게 가다듬었다. 한편 동해는 어촌민들의 고단한 삶이 펼쳐지고, 각종 풍속이나 교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삶의 현장이기도 했다. 3장에서는 이처럼 문학에 그려진 동해 형상의 몇몇 장면들을 제시하고 설명했다.

동해가 지닌 역사문화적 내포와 외연이 한 두 편의 글로 다 설명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글은 동해에 대한 다각적인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동해에 대한 논의가 다채롭게 이루어져, 동해가 지닌 역사문화적 사연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나아가 동해의 인문지리학적 너비와 깊이가 한층 확장되고 심화되기를 기대한다.

주

1) 이 논문은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2009, 『동해의 역사와 형상』 도록에 수록된 글을 보완하여 논문으로 改稿한 것이다. '동해'는 영문으로 East Sea라고 표기하고 서양고지도에는 Sea of Korea로 나타나 있지만 본 글에서는 조선시대의 고문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Dong Hae'로 표기하였다.
2) 李粹, 『陶菴集』 권1, 「聽人談白頭山」: "壯觀憑君得快論, 白頭勢欲敵崐崙. 北蟠大陸無天地, 東走千山若子孫. 緩嶺細開三水路, 深淵遙發二江源. 明朝試上南峰望, 積氣中間目力昏."
3) 이 지도는 『海東地圖』에 들어있으며,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설명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蓋我國地形, 北高而南低, 中殺而下贏. 以白山爲頭, 大嶺爲脊, 嶺南之對馬, 湖南之耽羅爲兩趾."
4) 이중환, 『擇里志』, 「八道總論」: "崑崙山一枝, 行大漠之南, 東爲醫巫閭山, 自此大斷, 是爲遼東之野. 渡野起爲白頭山, 卽山海經所謂不咸山, 是也. 精氣北走千里挾二江, 向南爲寧古塔, 背後抽一枝, 爲朝鮮山脈之首."
5)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天地篇, 地理類,, 山, 白頭山辨證說」: "天下有三大幹龍, 皆始於崑崙, 分派三條, 以入中國. 北條出河海, 流爲冀燕之分, 餘氣爲白頭山. 自白頭散爲朝鮮諸山."
6) 이중환, 『擇里志』, 「卜居總論·山水」: "月出一枝, 別爲南行, 由海南縣綰頭里, 爲南海中諸島, 渡海千里, 爲濟州漢拏山, 或云漢拏又渡海, 爲琉球國, 此不可知也. 然蓋知其甚邇也."
7) 이규경, 앞과 같은 곳: "北條幹龍盡於遼海, 更自白頭起祖, 爲朝鮮、日本、琉球."
8) 박제가, 정민, 이승수 외 역주, 2010, 『정유각집 (중)』, 돌베개.
9) 정약용, 『여유당전서 제6집, 지리집 2권』, 「疆域考 其2, 蕞貊別考」: "凡在大幹龍之東者, 皆西負太山, 東臨滄海. 北自北沃沮之地, 南至江陵, 別爲一局, 地勢狹窄, 歷考諸史, 每以此土之人, 指之爲濊也."
10) 이색, 『목은문고』 권4, 「聖居山文殊寺記」: "山之來遠矣, 根於長白, 蜿蜒千餘里, 傍東溟南走又千里."
11) 서거정, 『사가집』 권1, 「公州聚遠樓記」: "盖長白一脉, 傍海而南, 至雞林, 爲圓寂山, 西折遇熊津, 縮爲巨嶽者, 曰鷄龍山."
12) "後漢書東夷傳云, 東沃沮在高句麗蓋馬大山之東, 東濱大海,"
13) 허목, 『記言』 권32, 「外篇, 東事, 檀君世家」: "肅愼氏, 一名挹婁, 在不咸山北, 東濱大海,"
14) 김창흡, 『삼연집』 권11, 「永郎湖」: "屛張萬岫海開門, 沙阜成臺衆妙存. 漢將廻時三日哭, 至今猶記契玄言." 이 시에는 다음과 같은 부연 설명이 붙어있다. "曾聞玄言 漢將見此湖 稱以天下絶境 留連忘返 及其解陣去也 三日沿湖而哭."
15) 임숙영, 『疎菴集』 권1, 「登毘盧峰」: "慾傾東海添春酒, 醉盡寰中億萬人."
16) 동해에 숨으려던 옛 사람은 魯나라의 공자를 가리킨다. 공자는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뗏목을 타고 바다로 가고 싶다."(『논어』, 「공야장」 했고, 또 "九夷의 땅에 살고 싶다. … 군자가 살고 있는데 무슨 누추함이 있겠는가?"(『논어』, 「子罕」)라고 한 적도 있다. 사람들은 이를 가지고 공자가 동쪽 땅에 숨어 살 뜻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17) 김종직, 『점필재집』 권1, 「觀魚臺賦」: "… 두 나그네의 소개를 받고, 문득 우러러 사모하게 되었네. 술잔을 가득 채워 서로 권하며, 도의 근본 예 있음을 깨달았노라. 목은옹께 술 올리고 관어대부 읊조리니, 진기한 음식에 배가 부른 듯. 우리들 마음은 멀지 않으니, 나도 같이 밝고 성실한 군자가 되리라. 眷二客之脩騫兮, 忽有得於瞻跋. 崇羽觴以相屬兮, 悟一本之在此. 酌牧翁而詠姱辭兮, 若飽飫於珍旨. 肝膽非楚越之遙兮, 願同歸於明誠之君子."
18) 蓼田山城을 현지 전문가들은 삼척시 오분동의 오십천 변 산(해발 98m)에 남아있는 오화리산성일 것으로 추정하는데, 사실이 그러한지, 실제 이 성 위에서 울릉도가 바라보이는지는 확인을 요한다.

19) 원천석, 『운곡행록』 권1, 「登知峴望蔚陵」. 지현(知峴)이 어떤 고개인지는 현재 확인할 길이 없다. 원천석은 울진에서 삼척 가는 길에, 더 정확하게는 臨漪亭과 龍化驛 사이에서 이 시를 지었다. 용화역이 있던 곳은 지금의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이다. 지현이란 명칭은 그 뒤 成俔(1439~1504)의 시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그것은 삼척 竹西樓와 울진군 북면 덕천리의 마분동 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현의 문집인 『허백당집』 권11에는 「登知峴採松囷」이 「竹西樓下捕松魚」와 「登馬墳峰觀海魚」 사이에 편차되어 있다. 울진 영덕 일대에 馬墳峰이란 산은 없고, 울진군 북면 덕천리에 임진왜란 당시 김언륜 관련 전설과 함께 馬墳洞이란 지명이 있다. 마분봉은 마분동에 있는 산 이름으로 보인다.

20) 召公臺의 건립 경위는 신숙주가 지은 「大匡輔國崇祿大夫, 領議政府事, 領經筵, 藝文, 春秋館, 書雲觀事 世子師仍令致仕, 贈謚翼成黃公墓誌」(『保閑齋集』 권17)에 설명되어 있다. 그 이후 비석의 건립 경위는 원영환, 「召公臺와 山陽書院考」, 『강원문화사연구』 1(강원향토문화연구회, 1996)에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21) 유몽인, 『於于集』 권1, 「關東紀行三百韻」: "地名君奭召(召公臺), 民想翊成黃(黃喜). 短碣苔紋蝕, 千秋茂烈揚. 蔚陵(島名)浮海浪, 蒼嶼露天潢. 如艦漂篁笋, 隨波渡鹿麏."

22) 李山海, 『鵝溪遺稿』 권2, 「箕城錄, 紀行」: "崔嵬召公臺, 蔚陵看歷歷."

23) 이산해, 『아계유고』 권3, 「蔚陵島說」: "獨眞珠府與此島最爲相對, 故行人之登召公臺者, 或見其林木岡巒之狀, 了了然可辨, 以此知不甚遠也."

24) 이준원, 『구원집』 권1, 「召公臺望鬱陵島」; 이서구, 『惕齋集』 권3, 「召公臺望蔚陵島」.

25) 신정하, 『恕菴集』 권11, 「太白紀遊」: "以籃輿登絶頂, 禽鳥聲, 皆在履舄下. 僧言日晴可望鬱陵島, 而是日雲陰不見."

26) 이인상, 『凌壺集』 권3, 「遊太白山記」: "東望海色同雲, 浮霄爲一, 而三峰飛舞如霧中帆, 滾于雲而混于海者, 鬱陵島也."

27) 이민보, 『풍서집』 권3, 「早過大峙見蔚陵島」: "雲日吐吞劈紫瀾, 海天光怪朕行鞍. 蔚陵翠色從人指, 鰲背三峯馬首看."

28) 울릉도에 대한 개인 기록은 이렇게 풍부한데, 독도의 경우는 어떠한가? 아쉽게도 개인 기록에서 독도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16세기 후반 권문해(1534~1591)가 영덕에 부임하는 姜明遠에게 준 시에서, "고래 파도 북쪽으로 于山島와 닿아있고, 안계는 동쪽으로 일본에서 다하누나."(권문해, 『草澗集』 권2, 「送姜明遠赴野城」: "鯨波北接于山島, 眼界東窮日域邊.")라고 한 바 있다. 권문해는 우산도가 영덕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우산도는 15세기 이후 독도의 명칭으로 통용되었지만, 이 시에서 쓰인 우산도가 독도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29) 김창흡, 『삼연집』 권8, 「漁舟2」: "煙波詩景富, 岸嶽浦家愁."

30) 김창흡, 『삼연집』 권8, 「羽溪道中2」: "물결 잔잔 사람들 미역을 따다, 모래밭에 모여 앉아 이야기하네. 波恬人採藿, 三五聚沙喧."

31) 이익, 『국역 성호사설』 권17, 「人事門, 本草」. 이유원, 『국역 임하필기』 권28, 「春明逸史, 海帶」.

32) 정약용, 『국역 경세유표』 권14, 「均役事目追議」 제1, '藿稅'.

33) 정약용은 관북에서도 특히 함흥의 바다에서 생산되는 미역의 품질이 좋다고 했으며(앞의 글), 홍량호는 함경도 慶興 지방의 미역을 기술하며 그 채취 방법까지 소개한 바 있다. (『耳溪集』 권12, 「北塞記略, 孔州風土記」.

34) 박제가, 정민, 이승수 외 역주, 2010, 『정유각집(중)』 「元山 屬德原府」, 515-516.

문 헌

김기혁, 윤용출, 2006, 조선-일제강점기 울릉도지명의 생성과 변화, 문화역사지리, 19(1), 19-36.

김상현, 2000, 건봉사와 사명, 불교연구, 17, 67-83.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2009, 동해의 역사와 형상,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서울.

고승희, 1996, 18~19세기 함경도 지역의 유통로 발달과 상업활동, 역사학보 151, 71-109.

노정식, 1993, 고지도상에 나타난 동해(일본해)지명연구, 대구교육대학논문집, 27, 259-279.

박제가 저, 정민, 이승수 외 역주, 2010, 국역정유각집, 돌베개, 서울.

배우성, 2000,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국토관과 지역인식, 한국사연구 108, 79-114.

변동명, 2005, 이승휴의 생애와 저술, 진단학보, 99, 129-164.

서정철, 1991, 서양고지도와 한국, 대원사, 서울.

신용하, 2003,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쟁, 한양대학교 출판부, 서울.

양보경, 1997, 조선시대 '백두대간' 개념의 형성, 진단학보, 83, 85-106.

양보경, 2004, 조선시대 고지도에 표현된 동해지명, 문화역사지리, 16(1), 89-111.

양언석, 2006, 고성과 사명당과의 관계 고찰, 강원민속학, 20, 25-47.

오상학, 2006, 조선시대 표현된 울릉도 독도 인식의 변화, 문화역사지리, 18(1), 78-101.

오일환, 이승수, 2010, 서양고지도를 활용한 '동해' 전시콘텐츠 구성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

(7), 208-219.
오일환, 2004, 서양고지도의 동해표기와 유형의 변화, 국제지역연구, 8(2), 167-186.
원영환, 1996, 소공대와 산양서원고,강원문화사연구, 1, 1-14.
이상태, 1995, 역사문헌상의 동해표기에 대하여, 사학연구, 50, 473-485.
이진명, 1998,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서울.
이 찬, 1992, 한국의 고지도에서 본 동해, 지리학, 27(3), 263-267.
이태호, 2010, 옛 화가들은 우리 땅을 어떻게 그렸나, 생각의 나무, 서울.
홍금수, 2009, 경관과 기억에 투영된 지역의 심층적 이해와 해석, 문화역사지리, 21(1), 46-94.
국역기유록, 민족문화추진회(1976).
국역성호사설, 이익, 민족문화추진회(1978).
국역열하일기, 박지원, 민족문화추진회(1976).
국역오주연문장전산고, 이규경, 민족문화추진회(1981).
국역임하필기, 이유원, 민족문화추진회(1999).
국역택리지, 이익성 역, 을유문화사(1994).
白沙北遷錄, 鄭忠信, 국립중앙도서관.
北遊錄, 李崙夏,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필사본).
四溟堂大師集, 惟政, 韓國佛敎全書 8, 동국대학교출판부(1997).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http://oldmaps.khu.ac.kr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http://www.e-kyujanggak.ac.kr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

• **교신** : 오일환, 446-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1번지 경희대학교 학부대학 교양학부, ohil@khu.ac.kr 전화: 031-201-2012, 팩스: 031-201-2015
Correspondence : Oh, Il-whan, College of Liberal Arts, Kyunghee University, ohil@khu.ac.kr. Phone: 031-201-2012 Fax: 031-201-2015

(접수: 2010.7.21, 수정: 2010.8.16, 채택: 2010.9.17)